

슬픈 책벌레들

최성각

소설가

글쟁이로보다 책벌레로 더 알려졌던 고후식(高厚植)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좀 일찍 세상을 뜨자, 역시 술에 취한 한 시인이 책 한권을 들고 와 빈소에서 흐느껴 운 일에 대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나중에야 알려졌지만, 그 일의 자초지종은 대충 이렇게 되어 있었다. 생전에 고후식은 사람들이 자신을 '책벌레'라고 호칭하는 것에 대해 은근히 만족해하는 사람이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벌레'라는 말은 사실 얼마나 징그러운 말인가. 그런데도 '책'이라는 말과 합성이 되면, 왜 갑자기 그렇게 불리어지는 사람을 공연히 으쓱하게 만드느니 모를 일이다.

이럴테면 '돈벌레'라고 쳐보자.

돈이 많은 건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쁜가. 그렇지만 '공부벌레'나 '책벌레'는 징그러움은커녕 피차에 고상하게조차 여겨지니 참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나라의 승문(崇文)하던 전통이 어느 정도 그런 인상을 주는데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싶기는 하다.

책벌레인 고후식이 곧 수많은 책을 엄청난 집중력으로 독파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가 책을 지독하게 좋아하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두번째로 그가 좋아한 것은 술이었다.

고후식에게는 책에 관련된 몇가지 원칙이 있었다. 대단할 것도 없는 원칙이었지만 그중의 제일 큰 원칙이 '책을 빌려오지 않고, 빌려주지 않기'였다. 나머지 원칙들은, 이럴테면 초록색 연필로 읽던 책에 줄긋기 따위의 지극히 개인적인 버릇이므로 소개할 건덕지가 없는 원칙이라 해야 하겠다. 그가 빌려오지도, 빌려주지도 않는 원칙을 지키기로 한 데에는 그럴 만한 곡절이 있었다. 곡절이라 해야 뭐 별것이었겠는가. 빌려오면 본의 아니게 돌려주기 어려워지고, 빌려주면 책이 도무지 돌아오지 않더라는 경험이 그런 원칙을 세우게 된 배경이라면 배경이었다.

고후식이 술 때문에 알아놓기 수년 전

“생전에 고후식은 사람들이 자신을 ‘책벌레’라고 호칭하는 것에 대해 은근히 만족해하는 사람이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벌레’라는 말은 사실 얼마나 징그러운 말인가. 그런데도 ‘책’이라는 말과 합성이 되면, 왜 갑자기 그렇게 불리어지는 사람을 공연히 으쓱하게 만드느니 모를 일이다.”

7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모란이 뚝뚝 떨어지거나 그런 계절도 아니었지만, 그 일이 일어났었다.

어쩌다 집에 들른 시 쓰는 후배가 책을 빌려달라고 졸라댄 것이다.

“난 책 안 빌려오고, 안 빌려준다. 정말 미안하다.”

고후식이 거절하는 사람답지 않게 공손하게 말했다.

“압니다, 선배님. 그치만 저 책은 제가 지난 5년간 찾았던 책입니다. 얼른 복사를 한 뒤 등기 속달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 쓰는 후배가 정중하고 간절하게 말했다.

“난 자네 말을 믿네. 그렇지만 나도 꼭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지. 선배한테나 역시 한 5년쯤 찾던 책이 있길래, 졸라서 빌려왔었지. 근데 그 약속을 못 지킨 거야. 어쩌다 몇 년이 흐른 뒤, 책을 부치려고 우체국에 가는 길이었어. 집에서 나오면서 현관 바닥에서 석간을 집어들었는데, 그 선배의 부고가 거기 박혀 있었지 뭐가. 아아 그때의 그 자기혐오감이라니... 책은 결국 그의 영전에 갖다바쳤지. 자 그러니 어쩌겠는가. 자네가 날 이해해주는 수밖에.”

고후식이 마치 소설에 나오는 대사처럼 말했다. 후배는 낙심하는 빛이 역력했다. 고후식은 얼른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렸다.

옛날 인도에서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한 현자에게 부자가 찾아와서 마음의 평안까지

얻고자 했다더라. 가진 걸 다 버리고 오라니까, 알았다고 한 뒤 부자가 갠지스강가에 나가는 눈치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현자도 좀 덜떨어진 현자였는지 호기심을 못 참고 강가에 가 보았다네. 강가에 사람이 잔뜩 모여 있었다네. 자세히 보니, 부자가 커다란 금괴의 금화를 한낱씩 강에 던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강에 떨어진 금화를 줍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현자가 말했다지. 버릴 때는 한꺼번에 버려야 한다고, 장난치지 말라고.

뭐 그런 이야기로 후배의 관심을 돌리려고 했으나, 후배는 귀만 선배에게 열어놓고 시선은 계속 그가 5년간이나 찾아 헤맸다는 책에 꽂고 있었다.

“선배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저 책을 빌려 주십시오. 얼른 복사를 한 뒤, 등기 속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 저 책을 지난 5년간이나...”

후배가 말했다. 후배의 얼굴과 목소리가 말할 수 없이 애절했다. 그렇지만 고후식은 무슨 관리처럼 자신의 원칙에 충실한 사람의 표정을 지었다. 절망에 빠진 후배가 거의 단념한 얼굴로, 그러나 아주 천천히 현관에서 운동화끈을 맬 때, 고후식의 원칙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좋다. 네가 그렇게 천천히 운동화끈을 맬 때는 수작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책을 빌려주마. 그렇지만 약속은 지켜야 한다. 등기까지는 좋지만 속달은 아니어도 된다. 나도 저 책을 아직 안봤으니까 말야.”

말을 마친 고후식은 다시 서재로 돌아가 후배가 원하는 책을 손에 집었다. 후배는 마치 조마조마하다가 판정승을 따낸 복서처럼 경중경중 뛰었다.

그리고 아니다 다를까, 수년이 흘렀던 것이다.

고후식은 책 다음으로 지나치게 좋아하던 술 때문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바로 그때 책을 돌려주려고 대문을 나섰던 시인은, 부음을 듣자 책을 들고 곧바로 빈소로 달려와 흐느꼈던 것이다.

고후식의 빈소에 놓인 책의 책명은 《책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



일러스트레이션/노희성